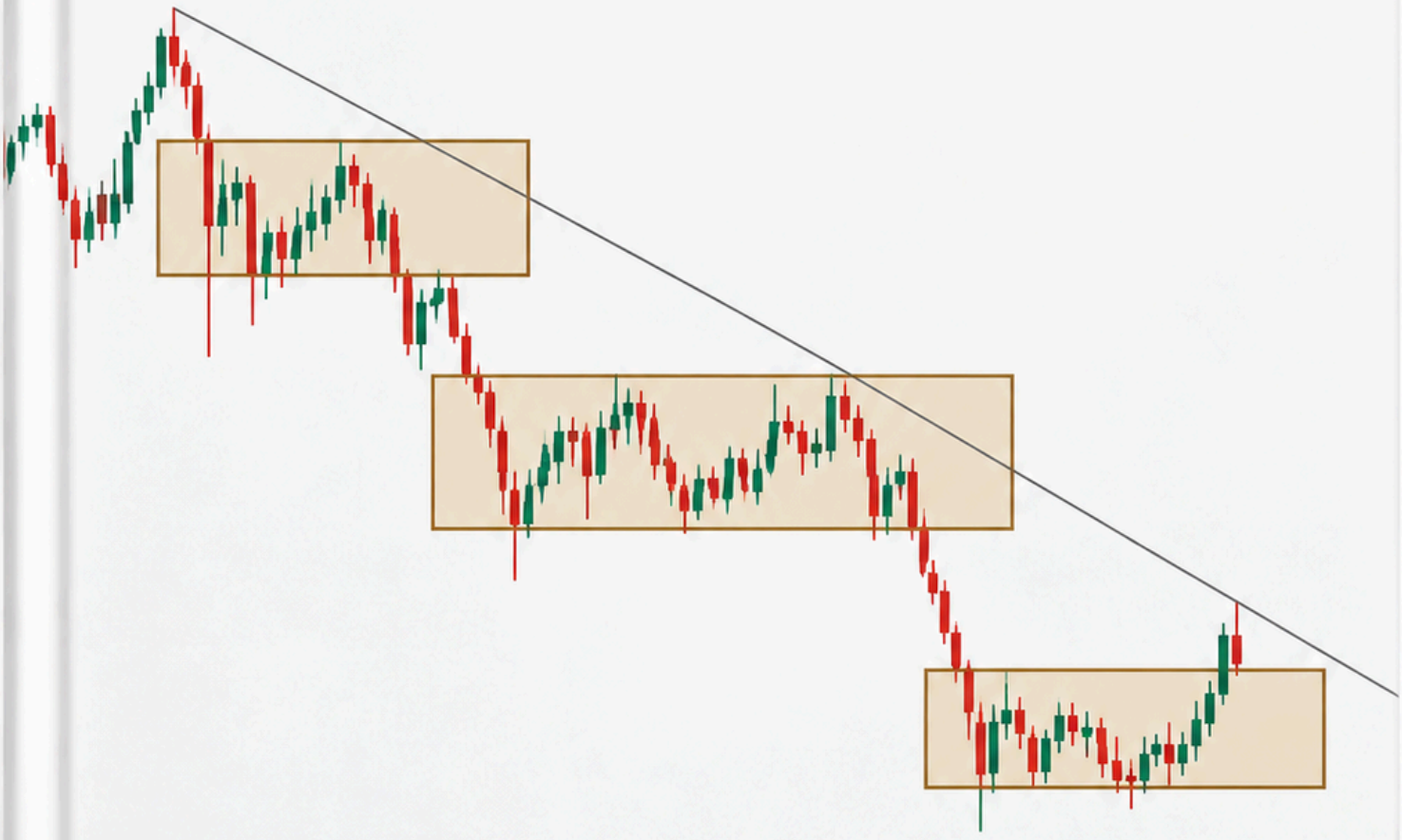
M1타점
사례 모음집

확인하고 들어가고, 기준대로 나온다

퍼거슨 지음



목차

1부. 익절 사례

확인 후 진입해 목표 구간에서 정리한 매매 6건

01	**SOL/USDT**	15분봉 · 숏 · 35배	**+29.98%**	4
02	**BTC/USDT**	15분봉 · 숏 · 40배	**+31.26%**	5
03	**BTC/USDT**	15분봉 · 롱 · 45배	**+22.75%**	6
04	**ETH/USDT**	15분봉 · 숏 · 45배	**+25.52%**	7
05	**ETH/USDT**	1시간봉 · 숏 · 45배	**+30.14%**	8
06	**XRP/USDT**	15분봉 · 숏 · 30배	**+25.34%**	9

2부. 손절 사례

기준에 맞았지만 흐름과 타이밍에서 어긋난 매매 6건

07	**SOL/USDT**	15분봉 · 숏 · 35배	**-23.24%**	11
08	**BTC/USDT**	15분봉 · 롱 · 40배	**-14.57%**	12
09	**BTC/USDT**	15분봉 · 숏 · 45배	**-12.79%**	13
10	**SOL/USDT**	15분봉 · 숏 · 35배	**-20.71%**	14
11	**BTC/USDT**	15분봉 · 롱 · 50배	**-3%**	15
12	**ETH/USDT**	15분봉 · 롱 · 45배	**-7%**	16

1부

익절 사례
확인 후 들어가 목표에서 나온 매매

지지 이탈 후 리테스트, 돌파 후 지지 전환, 중첩 저항과 페이크 돌파까지
M1 기준대로 확인하고 진입해 목표 구간에서 정리한 매매 6건입니다.

익절 사례 01

SOL/USDT

결과 **+29.98%**

15분봉 지지 이탈 → 리테스트 저항 전환 숏

손절 폭 약 1%

시간봉	포지션	레버리지	진입가	목표가 (TP)	손절가 (SL)	손익비
15분봉	**숏**	**35배**	**86.2**	**85.5**	**86.5**	**2 : 1**

차트 · 솔라나



SOL/USDT · 15분봉 · 숏

진입 86.2 → 목표 85.5 / 손절 86.5

진입 근거

고점을 더 이상 높이지 못하는 흐름이 확인되었고, 상승 추세의 힘도 점차 약해지고 있었다. 이후 중요 지지 구간을 거래량을 동반하며 하락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이전까지 지지로 작용하던 자리가 저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으로 판단하였다. 단기 프레임에서도 하락 전환 시그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해당 자리는 단순 눌림이 아니라 상승 힘이 약해지며 흐름이 꺾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았다.

진입 판단

지지 이탈 이후 바로 진입하지 않고, 리테스트 구간에서 저항 전환 가능성을 확인한 뒤 숏 포지션으로 대응하였다.

익절 / 손절 기준

다음 매물대 하단 구간까지를 단기 목표로 보았고, 이탈한 지지 구간을 다시 돌파할 경우 손절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복기

단순 예측이 아니라 지지 이탈과 흐름 약화를 확인한 뒤 대응한 매매였고, 목표 구간에서 욕심 없이 정리한 점이 좋았다.

매매 당시 판단 & 심리

고점이 높아지지 않는 흐름을 보면서 상승이 이어지기보다는 힘이 꺾이고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었다. 지지 이탈이 나왔을 때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내가 보는 기준대로 저항 전환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렸고, “확인이 나오면 들어간다”는 MDS 기준을 지키는 데 집중했다.

체크 포인트

- 고점이 높아지지 않으면 상승 힘은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 지지 이탈은 반드시 “리테스트 확인” 후 진입해야 한다
- 기준 없는 진입이 아니라 확인 매매를 해야 한다

익절 사례 02

BTC/USDT

결과 **+31.26%**

15분봉 저항 약화 + 지지 이탈 → 리테스트 숏

손절 폭 약 1% 내외

시간봉	포지션	레버리지	진입가	목표가 (TP)	손절가 (SL)	손익비
15분봉	숏	40배	70,250	69,800	70,400	2 : 1

차트 · 비트코인



BTC/USDT · 15분봉 · 숏

진입 70,250 → 목표 69,800 / 손절 70,400

진입 근거

상단 저항 구간에 도달한 이후 상승 강도가 점차 줄어드는 흐름이 확인되었다.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눌리는 형태가 반복되면서 상승 힘이 약해지고 있었고, 단기 중요 지지 구간을 거래량을 동반하며 하락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다. 또한 이전 상승 흐름에서 만들어진 패턴의 하단 구간과 지지 구간이 겹치는 자리였고, 해당 구간이 이탈되면서 단순 눌림이 아니라 단기 하락 전환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판단하였다.

진입 판단

지지 구간 이탈 이후 바로 추격하지 않고, 리테스트 구간에서 저항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한 뒤 숏 포지션으로 진입했다.

익절 / 손절 기준

다음 매물대 하단 지지 구간까지 단기 하락을 목표로 대응했다. 이탈한 지지 구간을 다시 돌파할 경우 손절 기준으로 설정했다.

복기

저항 구간에서 힘이 약해지는 흐름 → 지지 이탈 → 리테스트 확인. 매뉴얼 기준에 맞는 진입이었고, 목표 구간에서 욕심 없이 익절한 좋은 매매였다.

매매 당시 판단 & 심리

저항 구간에서 상승이 이어지지 못하고 계속 눌리는 흐름을 보면서, “지금은 더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꺾일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판단했다. 지지 이탈이 나왔을 때 바로 따라가지 않고, 내가 정한 기준대로 리테스트까지 기다렸고 확인이 나오는 자리에서만 진입한다는 MDS 원칙을 지키려고 했다.

체크 포인트

- 저항에서 힘이 약해지면 추세 전환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야 한다
- 지지 이탈 후 바로 진입이 아니라 리테스트 확인이 핵심이다
- 흐름이 꺾이는 구간에서는 “기다림”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익절 사례 03

BTC/USDT

15분봉 어센딩 수렴 돌파 → 지지 전환 롱

결과 **+22.75%**

손절 폭 약 1% 내외

시간봉	포지션	레버리지	진입가	목표가 (TP)	손절가 (SL)	손익비
15분봉	롱	45배	66,600	67,100	66,550	3 : 1

차트 · 비트코인



BTC/USDT · 15분봉 · 롱

진입 66,600 → 목표 67,100 / 손절 66,550

진입 근거

하락 이후 가격이 수렴하면서 저점을 점차 높이는 어센딩 패턴이 형성되었고, 이는 매수 의지가 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중요 저항 구간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며 장대 양봉으로 돌파가 발생했고, 단순 돌파가 아니라 추세 강도가 실리는 형태였다. 또한 볼린저밴드 상단을 강하게 확장시키는 흐름이 나오면서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그널이 확인되었고, 해당 구간은 저항이 지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보았다.

진입 판단

저항 돌파 이후 바로 추격하지 않고, 돌파한 구간을 다시 눌러주며 지지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한 뒤 롱 포지션으로 진입했다.

익절 / 손절 기준

다음 상단 매물대 저항 구간까지를 목표로 대응했다. 돌파 구간을 다시 이탈할 경우 손절 기준으로 설정했다.

복기

수렴 → 돌파 → 지지 전환 확인. 매뉴얼 기준에 맞는 정석적인 돌파 매매였고, 추격이 아닌 확인 후 진입한 점이 좋은 매매였다.

매매 당시 판단 & 심리

돌파가 나왔을 때 바로 따라가고 싶은 구간이었지만, “추격이 아니라 확인 후 진입”이라는 기준을 먼저 떠올렸다. 이미 상승이 시작된 자리였기 때문에 조급하게 진입하기보다, MDS 기준인 M1 시스템을 생각했고, 돌파 구간이 실제로 지지로 바뀌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으며 확신이 생긴 뒤에만 진입했다.

체크 포인트

- 돌파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지 전환 확인 후” 진입해야 한다
- 거래량 + 장대 양봉이 동반된 돌파만 의미 있다
- 좋은 매매는 빠른 진입이 아니라 “확인 후 진입”이다

익절 사례 04

ETH/USDT

15분봉 하락 추세 속 약한 반등 → 중첩 저항 숏

결과 **+25.52%**

손절 폭 약 1% 내외

시간봉	포지션	레버리지	진입가	목표가 (TP)	손절가 (SL)	손익비
15분봉	숏	45배	2,070	2,050	2,080	3 : 1

차트 · 이더리움



ETH/USDT · 15분봉 · 숏

진입 2,070 → 목표 2,050 / 손절 2,080

진입 근거

전체적으로 단기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흐름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상승 과정에서 거래량 증가가 동반되지 않으며 상승 강도가 약한 모습이 확인되었다. 또한 반등 구간이 이전 매물대 저항과 하락 추세선이 겹치는 중첩 저항 구간이었고, 단순 반등이 아니라 다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추세가 하락인 상황에서는 반등보다는 저항 구간에서의 반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중첩 구간에서 저항 확인 후 진입을 계획하였다.

진입 판단

반등 이후 중첩 저항 구간에서 돌파 실패 및 저항 캔들을 확인한 뒤 확인 매매 기준으로 숏 포지션으로 진입했다.

익절 / 손절 기준

다음 하단 매물대 지지 구간까지 단기 하락을 목표로 대응했다. 중첩 저항 구간을 돌파할 경우 손절 기준으로 설정했다.

복기

하락 추세 유지 → 반등 약함 → 중첩 저항 확인. 추세 방향에 맞는 매매였고, 반등을 따라가지 않고 기다린 점이 좋은 매매였다.

매매 당시 판단 & 심리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이 반등은 기회가 아니라 “다시 숏을 볼 자리”라고 판단했다. 급하게 따라붙기보다는 내가 보는 중첩 저항 구간까지 기다렸고, 추세와 중첩 구간이 맞는 자리에서 진입한다는 MDS 원칙을 유지했다.

체크 포인트

- 추세가 하락이면 반등은 롱 자리가 아니라 숏 자리다
- 중첩 구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핵심이다
- 거래량 없는 반등은 신뢰도가 낮다

익절 사례 05

ETH/USDT

결과 **+30.14%**

1시간봉 페이크 돌파 + 윗꼬리 저항 숏

손절 폭 약 1% 내외

시간봉	포지션	레버리지	진입가	목표가 (TP)	손절가 (SL)	손익비
1시간봉	**숏**	**45배**	**2,046**	**2,026**	**2,052**	**3 : 1**

차트 · 이더리움



ETH/USDT · 1시간봉 · 숏

진입 2,046 → 목표 2,026 / 손절 2,052

진입 근거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흐름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저항 구간에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긴 윗꼬리를 형성하며 매도 압력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또한 단기적으로 돌파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안착하지 못하는 페이크 돌파 형태였고, 이는 추세 지속 관점에서 다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신호로 판단하였다. 특히 저항 구간과 하락 추세선이 겹치는 자리였기 때문에, 단순 반등이 아닌 명확한 중첩 저항 구간에서의 실패로 해석하였다.

진입 판단

저항 구간에서 돌파 실패 및 윗꼬리 캔들을 확인한 뒤 확인 매매 기준으로 숏 포지션으로 진입했다.

익절 / 손절 기준

다음 하단 매물대 지지 구간까지 단기 하락을 목표로 대응했다. 윗꼬리 형성 구간을 돌파할 경우 손절 기준으로 설정했다.

복기

하락 추세 유지 → 돌파 실패 → 윗꼬리 확인. 추세에 맞게 대응했고, 페이크 움직임에 속지 않고 기다린 점이 좋은 매매였다.

매매 당시 판단 & 심리

돌파가 나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착하지 못하는 돌파는 실패다” 라는 MDS 시스템 기준을 먼저 적용했다. 윗꼬리로 매도 압력이 확인되는 순간,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보다 다시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고, 확실한 실패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뒤 진입했다.

체크 포인트

- 돌파는 “뚫는 것”이 아니라 “안착”이 핵심이다
- 윗꼬리는 매도 압력의 흔적이다
- 페이크 움직임에 속지 말고 확인 후 진입해야 한다

익절 사례 06

XRP/USDT

결과 **+25.34%**

15분봉 구조 붕괴 → 반복 저항 + 지지 이탈 숏

손절 폭 약 1% 내외

시간봉	포지션	레버리지	진입가	목표가 (TP)	손절가 (SL)	손익비
15분봉	**숏**	**30배**	**1.469**	**1.455**	**1.478**	**4 : 1**

차트 · 리플



XRP/USDT · 15분봉 · 숏

진입 1.469 → 목표 1.455 / 손절 1.478

진입 근거

거래량이 터지면서 큰 하락이 발생했고, 기존 상승 흐름의 구조가 무너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상승 과정에서 힘이 지속적으로 약해지는 흐름이었고, 고점을 높이는 듯한 움직임 속에서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며 상승 지속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었다. 또한 하락을 암시하는 패턴이 형성되는 가운데 저항 구간에서 여러 차례 막히는 흐름이 반복되었고, 단기 지지 구간마저 이탈한 이후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저항을 받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단순 반등이 아닌, 약한 상승 흐름 속 반복되는 저항 구조로 판단하여 숏 관점을 유지하였다.

진입 판단

저항 구간에서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저항을 확인하고, 단기 지지 이탈까지 확인한 뒤 확신을 가지고 숏 포지션으로 진입했다.

복기

구조 붕괴 → 약한 반등 → 반복 저항 → 지지 이탈. 확인에 확인을 거친 뒤 진입한 매매였고,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진입한 점이 매우 좋았다.

매매 당시 판단 & 심리

한 번의 신호로 판단하지 않고, 구조가 무너진 이후의 흐름을 계속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반등이 나올 때마다 따라가고 싶은 구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롱이 아니라 숏을 준비하는 구간”이라는 기준을 유지했고 여러 번의 저항과 지지 이탈까지 확인한 뒤에야 진입했다.

체크 포인트

- 한 번의 신호가 아니라 “확인에 확인”이 쌓여야 진입한다
- 구조가 무너지면 반등은 기회가 아니라 함정일 수 있다
- 손익비가 좋은 자리만 선별해서 진입해야 한다

2부

손절 사례
기준은 맞았지만 어긋난 매매

안착 확인 없는 돌파, 수렴 내부 진입, 손익비에 끌린 자리까지
손절이 난 이유와 다음 매매에서 바꿔야 할 기준을 정리한 6건입니다.

손절 사례 07

SOL/USDT

15분봉 박스 상단 저항 숏 → 장대 양봉 돌파

결과 **-23.24%**

손절 기준 도달 · 포지션 정리

시간봉	포지션	레버리지	진입가	목표가 (TP)	손절가 (SL)	손익비
15분봉	숏	35배	83.2	81.1	83.2 상단	5 : 1

차트 · 솔라나



SOL/USDT · 15분봉 · 숏

진입 83.2 → 목표 81.1 / 손절 83.2 상단

진입 근거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한 반등이 발생했고, 가격이 중요 매물대 상단 저항 구간까지 한 번에 도달하는 흐름이 확인되었다. 무리하게 따라붙지 않고, 내가 보는 중요 저항 구간까지 기다린 뒤 저항 반응을 확인하고 진입을 계획하였다. 해당 구간은 이전 박스 상단 매물대이자 단기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였고,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박스 하단까지 하락을 기대하였다.

진입 판단

중요 저항 구간에서 저항 반응을 확인한 뒤 확인 매매 기준으로 숏 포지션으로 진입했다.

익절 / 손절 기준

다음 박스 하단 매물대 지지 구간까지를 목표로 설정했다. 박스 상단 저항 구간을 돌파할 경우 손절 기준으로 설정했다.

복기

진입 자체는 기준에 맞는 자리였지만, 이후 거래량이 증가하며 장대 양봉이 발생했고 하락이 이어지지 않는 시점에서 대응이 늦었다. 결과적으로 익절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박스 상단을 돌파하며 손절이 발생하였다. 특히 거래량이 증가하며 상승이 이어질 때 힘이 꺾이지 않는 흐름을 더 빠르게 인지했어야 했다.

매매 당시 판단 & 심리

저항에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익절 구간까지 갈 것이라는 기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승 힘이 다시 강해지는 흐름이 나왔음에도 기존 시나리오를 고수하려는 쪽으로 판단이 기울었고, 흐름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한 박자 늦었다.

체크 포인트

- 손익비가 좋아도 “흐름이 바뀌면 바로 대응”해야 한다
- 거래량 + 장대 양봉은 추세 전환 신호일 수 있다
- 목표가보다 “현재 흐름”이 더 중요하다

손절 사례 08

BTC/USDT

15분봉 매물대 돌파 롱 → 안착 실패

결과 **-14.57%**

손절 기준 도달 · 포지션 정리

시간봉	포지션	레버리지	진입가	목표가 (TP)	손절가 (SL)	손익비
15분봉	롱	40배	71,500	71,500	71,000	3 : 1

차트 · 비트코인



BTC/USDT · 15분봉 · 롱

진입 71,500 → 목표 71,500 / 손절 71,000

진입 근거

매물대 저항 구간에서 돌파 캔들이 발생하며 가격이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확인되었다. 기존 저항 구간이 지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돌파 이후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단기적으로는 매물대 상단 돌파 이후 추세가 이어지는 전형적인 상승 흐름으로 해석하였다.

진입 판단

돌파 캔들을 확인한 뒤 지지 전환을 기대하며 롱 포지션으로 진입했다.

익절 / 손절 기준

상단 다음 매물대 저항 구간까지를 목표로 설정했다. 돌파한 매물대 구간을 다시 이탈할 경우 손절 기준으로 설정했다.

복기

돌파 자체는 확인되었지만, 이후 상승 강도가 약해지며 매물대 위에서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하단으로 재진입하였다. 결과적으로 돌파가 유지되지 못하고 지지 전환 실패로 이어지며 손절이 발생하였다. 특히 캔들 하나 더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진입한 것이 이번 손절의 핵심 원인이었다.

매매 당시 판단 & 심리

돌파 캔들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고, 놓치지 않기 위해 빠르게 진입하려는 심리가 작용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돌파”보다 “안착”이 더 중요한 구간이었고, 그 확인 없이 진입한 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

체크 포인트

- 돌파는 “캔들 하나”가 아니라 “안착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 매물대 위에서 지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진입 금지
- 조급함으로 들어가는 매매는 대부분 손절로 이어진다
- 최소 1~2 캔들 확인 후 진입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손절 사례 09

BTC/USD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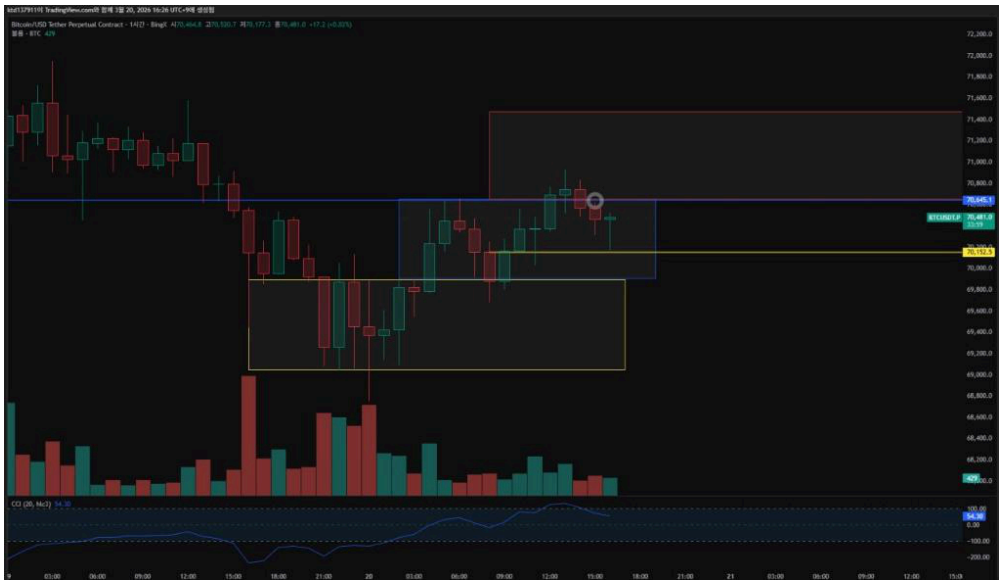
15분봉 중첩 저항 숏 → 익절 직전 강한 반등

결과 **-12.79%**

손절 기준 도달 · 포지션 정리

시간봉	포지션	레버리지	진입가	목표가 (TP)	손절가 (SL)	손익비
15분봉	숏	45배	70,657	70,152	70,800	3 : 1

차트 · 비트코인



BTC/USDT · 15분봉 · 숏

진입 70,657 → 목표 70,152 / 손절 70,800

진입 근거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큰 흐름에서는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었고, 상단에는 여러 저항 구간이 겹쳐 있는 상황이었다. 가격이 저항 구간에 도달한 이후 저항 반응이 확인되었고, MDS 기준이 충족되는 자리로 판단하여 진입을 계획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하단 매물대까지 충분히 하락이 이어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았다.

진입 판단

저항 구간에서 반응을 확인한 뒤 매뉴얼 기준(MDS)에 따라 숏 포지션으로 진입했다.

익절 / 손절 기준

하단 노란색 매물대 구간까지를 익절 목표로 설정했다. 상단 저항 구간을 돌파할 경우 손절 기준으로 설정했다.

복기

진입 이후 하락이 이어지며 익절 구간 근처까지 접근했지만, 직전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며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구조가 유지된다고 판단하여 포지션을 유지했지만, 이후 예상과 다른 강한 반등이 발생하며 시나리오가 무효화되었고 손절 기준에 따라 포지션을 정리하였다. 이번 매매는 방향 자체는 맞았지만 시장 흐름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은 케이스였다.

매매 당시 판단 & 심리

하락이 이어지다가 익절 구간 직전에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만 더 가면 익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존 시나리오를 유지하려는 심리가 작용했다. 하지만 반등 강도가 예상보다 강해지면서 내가 세운 시나리오와 시장의 움직임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했고, 그 순간 바로 손절 기준을 실행했다.

체크 포인트

- 방향이 맞아도 끝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다
- 익절 직전이라도 흐름이 바뀌면 바로 대응해야 한다
- “손절도 시스템이다” →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실행
- 시나리오가 틀리면 빠르게 인정하고 정리해야 한다

손절 사례 10

SOL/USDT

15분봉 추세선 + 저항 중첩 숏 → 삼각 수렴 내부 진입

결과 **-20.71%**

손절 기준 도달 · 포지션 정리

시간봉	포지션	레버리지	진입가	목표가 (TP)	손절가 (SL)	손익비
15분봉	숏	35배	85.5	84.8	86.0	5 : 1

차트 · 솔라나



SOL/USDT · 15분봉 · 숏

진입 85.5 → 목표 84.8 / 손절 86.0

진입 근거

저점을 점차 낮추는 하락 구조가 유지되고 있었고,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흐름이었다. 또한 단기 추세선과 저항 구간이 겹치는 중첩 구간에서 반응이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숏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해당 구간은 추세 + 저항이 겹치는 자리로,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판단하였다.

진입 판단

추세선과 저항이 겹치는 구간에서 반응을 확인한 뒤 숏 포지션으로 진입했다.

익절 / 손절 기준

하단 매물대 구간인 84.8 부근까지를 익절 목표로 설정했다. 상단 저항 구간을 돌파할 경우 손절 기준으로 설정했다.

복기

진입 이후 하락이 이어지며 익절 구간 근처까지 접근했지만, 이후 반등이 나오며 흐름이 이어지지 않았다. 해당 구간은 명확한 추세 이탈 구간이 아니라 삼각 수렴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었고, 수렴 이탈 확인 없이 진입한 것이 성급한 판단이었다. 결과적으로 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한 것이 손절로 이어진 핵심 원인이었다.

매매 당시 판단 & 심리

추세가 하락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중첩 구간에서 반응이 나오자 바로 진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확정된 이탈”이 아니라 “수렴 내부 움직임”이라는 점을 간과했고,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구간에서 서두른 판단이 들어갔다.

체크 포인트

- 수렴 구간에서는 “이탈 확인 전 진입 금지”
- 추세 + 중첩 구간이라도 구조 확정이 먼저다
- 좋은 자리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손절이 된다
-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다음 매매를 위한 준비다

손절 사례 11

BTC/USDT

15분봉 중간 구간 매물대 돌파 롱 → 돌파 실패

결과 **-3%**

손절 기준 도달 · 포지션 정리

시간봉	포지션	레버리지	진입가	목표가 (TP)	손절가 (SL)	손익비
15분봉	롱	50배	69,850	70,080	69,830	6 : 1

차트 · 비트코인



BTC/USDT · 15분봉 · 롱

진입 69,850 → 목표 70,080 / 손절 69,830

진입 근거

하락 이후 반등이 나오면서 매물대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발생하였고, 돌파된 구간이 지지로 작용하는 흐름이 확인되었다. 해당 구간에서 지지 확인 후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롱 포지션을 고려하였다. 또한 손익비가 매우 유리한 자리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였다.

진입 판단

매물대 돌파 이후 지지 확인을 바탕으로 롱 포지션으로 진입했다.

익절 / 손절 기준

상단 매물대 구간인 70,080 부근까지를 익절 목표로 설정했다. 지지 구간을 이탈할 경우 손절 기준으로 설정했다.

복기

돌파 이후 지지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이후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다시 매물대 내부로 재진입하였다. 결과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못하고 돌파 실패로 이어지며 손절이 발생하였다. 이번 매매는 돌파 자체는 있었지만 큰 흐름에서 상승 구조가 아닌 구간에서의 돌파였고, 작은 구조만 보고 진입한 것이 핵심적인 실수였다.

매매 당시 판단 & 심리

손익비가 매우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한 번 시도해볼 만한 자리”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전 고점 돌파 이후가 아닌 중간 구간에서의 돌파였다는 점을 간과했다. 결과적으로 기준보다 손익비에 더 집중한 판단이 이번 손절로 이어졌다.

체크 포인트

- 손익비가 좋아도 “자리(위치)”가 틀리면 의미 없다
- 돌파는 반드시 “전 고점 돌파 이후”가 더 유리하다
- 작은 구조보다 큰 흐름을 먼저 봐야 한다
- 거래량 없는 돌파는 신뢰도가 낮다

손절 사례 12

ETH/USDT

15분봉 시간 조정 후 돌파 리테스트 롱 → 한 박자 빠른 진입

결과 **-7%**

손절 기준 도달 · 포지션 정리

시간봉	포지션	레버리지	진입가	목표가 (TP)	손절가 (SL)	손익비
15분봉	롱	45배	2,018	2,024	2,011	4 : 1

차트 · 이더리움



ETH/USDT · 15분봉 · 롱

진입 2,018 → 목표 2,024 / 손절 2,011

진입 근거

일정 시간 조정을 거친 이후 매물대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 단순 반등이 아닌 의미 있는 돌파로 판단하였다. 이후 리테스트 구간에서 지지로 전환되는 캔들이 확인되었고, 해당 구간에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시간 조정을 충분히 거친 뒤 나온 돌파였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자리라고 판단하여 시스템 매매(M1 기준)로 진입하였다.

진입 판단

매물대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 확인 캔들을 기준으로 롱 포지션으로 진입했다.

익절 / 손절 기준

상단 매물대 구간인 2,024 부근까지를 익절 목표로 설정했다. 지지 구간을 이탈할 경우 손절 기준으로 설정했다.

복기

진입 직후 다음 캔들에서 매물대 내부로 다시 밀리며 긴 밑꼬리를 만들고 손절 구간을 터치하였다. 이후 가격은 내가 예상한 방향대로 상승했지만, 진입 타이밍이 한 박자 빨랐던 매매였다. 특히 돌파 당시 거래량이 충분히 동반되지 않았고, 리테스트 이후에도 추가적인 지지 확인 없이 진입한 것이 핵심 원인이었다. 또한 큰 흐름에서는 하락 추세 중 발생한 상방 돌파였기 때문에 완전히 유리한 구조는 아니었다.

매매 당시 판단 & 심리

시간 조정을 거친 뒤 나온 돌파였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자리”라는 확신이 있었고, 빠르게 진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거래량이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추가 확인 없이 진입한 부분이 성급한 판단이었다. 손절 이후 바로 다음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대응한 점은 좋았지만, 애초에 한두 캔들만 더 확인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손절이었다.

체크 포인트

- 돌파는 “시간조정”보다 “거래량 동반”이 더 중요하다
- 리테스트 이후 최소 1~2 캔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방향이 맞아도 타이밍이 틀리면 손절이 나온다
- 손절 이후 바로 다음 시나리오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